

“보툴리눔 독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 논의는 부적절”

**제약·바이오 업계
“규제 기관 관리감독 더 강화해야
정치적 이슈·생물 테러위협 가중”**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보툴리눔 독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 논의는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서 논의했던 보툴리눔 독신 균주와 제조 공정에 대한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해제하기 위한 안건을 놓고 추가적인 검토를 앞두고 있다. 현재 보툴리눔 독소 관련 생산 기술은 정부에서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는 보툴리눔 독신에 대한 규제해제가 아니라 오히려 규제 기관의 관리 감독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보툴리눔 독신은 소량으로 수백만 명을 살상할 수 있는 생화학 무기소재로도 알려졌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 세균전 부대로 알려진 731부대에서 조선인과 중국인을 대상으로 무기화를 위한 생체실험이 자행됐으며, 미국에서는 민관이 협력해 백신 개발에 성공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북한의 오물 풍선 등 여러 생물 테러 위협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0월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오물 풍선이 보툴리눔 독신, 탄저 등을 활용한 생

화학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질병관리청장은 “생물 테러 위험성을 인식해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보툴리눔 독신의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를 놓고 찬반이 대립하는 상황 자체도 문제지만, 여러 정치적 이슈와 함께 생물 테러 위협까지 가중되는 엄중한 상황을 가정하면 매우 부적절한 논의라고도 볼 수 있다”며 “지금은 선부른 규제 해제보다는 현 제도 하에서 안정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균주 출처, 제조 공정 도용 등의 이슈가 여전히 상존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도 기술 유출 방지에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은 기술·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 유출 시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출, 기술 이전,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인수합병(M&A) 등에는 산업통상자원부 허가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적발한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은 총 25건인 가운데, 국가핵심기술도 10건 포함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 일부에서는 까다로운 승인 절차가 독신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도 간과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정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CGV 육개장사발면 팝콘.

CGV-농심 협업 ‘육개장사발면 팝콘’

CGV는 농심과 협업해 인기 메뉴인 육개장사발면과 콜라보한 신메뉴 ‘육개장사발면 팝콘’을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육개장사발면 팝콘’은 국내 컵라면 매출 1위 제품인 육개장사발면의 얼큰한 소고기 국물 맛을 그대로 재현한 CGV만의 자체개발 시즈닝과 고소한 팝콘이 어우러지는 것이 특징이다.

팝콘 라지 사이즈를 주문하면 육개장사발면 팝콘과 다른 팝콘 맛을 선택해 반반팝콘으로 즐길 수도 있다. 팝콘 개발자 추천 맛인 ‘육개장사발면 맛+달콤한 맛’으로 선택하면 중독성 강한 단짠 조합으로 맞출 수 있다. 팝콘 외에도 육개장사발면 캐릭터인 농이를 활용한 라면스프 모양의 파우치를 비롯해 다양한 콜라보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육개장사발면 팝콘 출시를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도 선보인다. 육개장사발면 팝콘과 탄산음료로 구성된 ‘육사발 팝콘세트’를 6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을 CGV 모바일 앱의 이벤트페이지에서 지급하며, 선착순으로 사용 가능하다. /신원선 기자

하이트진로, 베델 하이츠 빈야드 등 美 오리건 와인 선보

**수입 와인, 평론가들에 높은점수
극소량만 수입해 빠른 완판 예상**

국내대표 종합주류회사 하이트진로가 미국 ‘나파 밸리’ 만큼이나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오리건(Oregon)’ 지역 대표 와인너리 ‘베델 하이츠 빈야드’와 ‘쉐 와인셀러’의 제품을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오리건 지역의 기후와 지리적 특징은 포도 성장 기간에 제약을 주어 고품질 소량생산을 지향한다. 이번에 하이트진로가 수입한와인은매 빈티지마다 평론가들에게 높은 점수를 받는 제품이면서 수입된 양도 극소량으로 빠른 시일 내에 완판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이트진로가 오리건 지역 대표 와인너리 ‘베델 하이츠빈야드’와 ‘쉐 와인셀러’ 제품을 선보인다. /하이트진로

먼저, ‘베델 하이츠 까스틸 이스테이트 샤르도네’와 ‘베델 하이츠 까스틸 이스테이트 피노 누아’는 각각 샤르도네 품종 100%, 피노 누아 품종 100%이며 최고 품질의 배럴(와인을 숙성하고

보관하는 오크통) 와인만을 선정해 소량 생산 한다. 베델 하이츠 와인 중 유일하게 가족의 이름을 붙인 아이론 와인으로 국내에는 각 60병만 입고됐다. ‘베델 하이츠 이스테이트 피노 누

아’는 1984년에 출시한 베델 하이츠의 플래그십 와인으로 2024년 ‘와인 스펙테이터’ 100대 와인에 선정됐다. 딸기, 라즈베리, 오렌지 껍질과 같은 과실향과 야생꽃 향이 조화로우며 부드러운 탄닌의 질감이 특징이다.

함께 선보이는 ‘쉐 와인셀러’는 닥 쉐와 그의 아내 디어드레 쉐가 1989년 압힐 카운티 언덕에 위치한 포도밭을 매입하며 시작했다. 그들이 매입한 부지 전체는 ‘쉐 빈야드’로 현재 세계적인 수준의 피노 누아와 샤르도네를 생산하며 최상위 품질의 포도 20%를 쉐 와인셀러의 와인으로 생산, 나머지 80%는 오리건과 캘리포니아 유명 와인너리들에 한정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삼바, 美 제너레이트 바이오메디슨에 투자 쿠광, 뷰티 신제품 업계 최초로 선보인다

**삼성 라이프사이언스펀드
2400억 출자... 조합 결성해 운용**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생명과학 분야 신기술 및 사업 개발을 위해 조성한 ‘삼성 라이프사이언스펀드’를 통해 미국 바이오 벤처 기업 제너레이트 바이오메디슨에 투자한다고 18일 밝혔다.

삼성 라이프사이언스펀드는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공동으로 2400억원을 출자해 조성한 벤처 투자 펀드로 삼성벤처투자자가 조합을 결성해 운용 중이다.

이번에 투자를 진행한 미국 제너레이트 바이오메디슨은 생성형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등을 활용한 단백질 디자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제너레이트 바이오메디슨이 자체 개발한 생성형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인 크로마는 원하는 특성과 기능을 갖춘 드 노보 단백질을 신속하게 설계하는 기술이다. 이를 활용하면 의약품 개발 기간을 혁신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의 설명이다. 드 노보 단백질은 기존에 존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 전경. /삼성바이오로직스

재하는 단백질 서열이나 구조에서 유래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혁신 바이오벤처 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신약개발 성공 시 위탁생산(CMO) 등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존 린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혁신적인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제너레이트의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제너레이트의 장점인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역량을 활용해 개발, 제조, R&D 분야 협력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고객이 필요로 하는 차세대 의약품 분야의 발전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신상공개관에 ‘선런칭’ 코너 마련

쿠광이 뷰티 ‘신상공개관’에 신제품을 업계 최초로 선보이는 ‘선런칭’ 코너를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쿠광은 이를 기념해 이달 22일까지 10개 브랜드 1300여 개 제품을 최대 78%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쿠광에 따르면, ‘신상공개관’ 내 입점 브랜드 신제품을 타 유통채널보다 먼저

쿠광에서 공개하는 ‘선런칭’ 코너를 신설한다. 유통업체 가운데 쿠광에서 처음으로 인기 브랜드가 공들인 신제품을 먼저 구매,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뷰티 고객들에게 새로운 혜택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쿠광 측은 설명했다.

앞서 쿠광은 지난해 10월부터 입점 90일 이내 브랜드를 대상으로 최신 뷰티 제품을 소개하는 전문 테마관 ‘신상공개관’을 운영해 왔다. /안재선 기자

오늘부터 일주일간 ‘홈플러스대란’ 행사

홈플러스가 이달 19일부터 25일까지 마지막 ‘홈플러스대란’ 행사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자사 대표 연말 할인 행사인 ‘홈플러스대란’을 시작한 지 약 3주간 점포별 매출이 최대 118% 증가했다. 특히 고객 쇼핑 데이터를 분석해 꼭 필요한 상품을 할인가에 제공하는

‘AI 메가핫딜’ 매출은 최대 300%까지 올랐다.

이에 홈플러스는 마지막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주 ‘AI 메가 핫딜’에서는 행사 카드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10Brix 제주 밀감(1.3kg)’, ‘항공직송체리(450g)’, ‘단단과프리카’를 모두 5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

/안재선 기자

CJ제일제당-김호영 맞손 셰프컬렉션 시즌3 출시

CJ제일제당의 K-푸드 대표 브랜드 비비고가 스타 셰프의 맛을 담은 ‘비비고 셰프컬렉션 시즌3’를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2022년 첫 선을 보인 비비고 셰프컬렉션은 한식 파인 다이닝을 전문으로 하는 미쉐린 스타 셰프의 요리를 집에서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만든 프리미엄 밀키트다. 이번에 선보인 세 번째 비비고 셰프컬렉션은 미국 뉴욕에서 한식 파인 다이닝 ‘주아(JUA)’를 운영하고 있는 김호영 셰프와 함께한다. 주아는 반찬과 죽 등 한국인에게 친숙한 메뉴와 재료에 숯과 훈연의 맛을 가미한 새로운 스타일의 한식 파인 다이닝으로 3년 연속 미쉐린 1스타를 유지하고 있다.

CJ제일제당과 김 셰프가 협업한 신제품은 ‘전복 관자 들개 새래기찜’, ‘파리고추소스를 곁들인 수비드 LA갈비 스테이크’, ‘청양크림갈국수’의 3종이다. LA갈비, 시래기, 파리고추, 대파 등 익숙한 재료에 모던 아메리칸과 프렌치 기법을 더해 한식을 색다른 매력으로 풀어냈다. /신원선 기자